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2 pp. 1084-1091, 2015

http://dx.doi.org/10.5762/KAIS.2015.16.2.1084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창원시 베이비부머 세대의 직장만족과 삶의 질과의 관계 연구 -노후준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유미[1], 강양희[2*]
[1]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창신대학교 간호학과

Work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in Baby Boomer : Focused on Retirement Preparation as Mediator Effect

Yu-Mi Jang[1], Yang-Hee Kang[2*]
[1]Division of Social Welfare, Changshin University
[2]Division of Nursing, Changshi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삶의 질 정도와 노후준비를 살펴보고 직장생활, 노후준비, 삶의 질 간의 실증적인 관계를 파악하여 직장생활을 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삶의 질에 노후준비가 어떤 매개효과를 가지는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 204명을 대상으로 2012년 9월 22일~9월 30일의 기간 동안 설문지를 통해 면접 조사하였다. 중심 변수들 간의 연구모형을 SPSS 15.0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특성과 영향력 검증을 한 후, Amos 7.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매개효과 검증을 하였다. 연구결과, 창원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에 있어서 직장생활 즉 직무에 대한 만족도와 직장생활을 통한 사회적 교류 정도가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노후에 대한 준비는 삶의 질에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level of retirement preparation and quality of life an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work, retirement preparation and quality of life in the baby boomer generation.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04 people in the baby boomer generation in Changwon city, Gyeongsangnam-do. Results: Work affected the quality of life in the Changwon city baby boomer generation through job satisfaction and social interaction in the workplace. Retirement preparation through the workplace also appeared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work(satisfaction and social network) can affect the quality of life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Furthermore, the retirement preparation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has a partial mediation effect on the overall quality of life.

Key Words : Baby Boomer Generation, Work Satisfaction, Quality of Life, Retirement Preparation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그 기간이 매우 빠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와 대책이 서둘러 이루어져야 함을 뜻하기도 한다. 특히 미래 고령자가 될 뉴실버 세대인 베이비부머 세대는 상대적으로 더 길어진 생애 주기인 노년기에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나 일차적 책임을 가진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적 부조만으로는 불충분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Corresponding Author : Yang-Hee Kang(Changshin Univ.)
Tel: +82-55-250-3171 email: lamb33@cs.ac.kr
Received January 27, 2014 Revised (1st August 11, 2014, 2nd November 10, 2014 3rd November 18, 2014) Accepted February 12, 2015

한국전쟁 이후 출산율 상승으로 광범위하게 출현한 베이비부머 세대는 1955년부터 1963년 중에 현재 약 732만 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5.2%를 차지하는 거대한 인구집단이다. 전쟁 후 어려운 경제 사정에서도 교육에 열의를 불태워 고등교육을 마친 세대이고 민주화 운동을 통해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앞섰고, 과도한 입시경쟁과 실업문제, 주택문제 등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겪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을 지닌 세대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중추였지만 IMF와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으며 조기은퇴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노후생활 준비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세대이기도 하다. 이 세대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인구 고령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임은 분명한 일이다[3].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은 경제적 차원에서만 논의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못지않게 노년기의 길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에 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 베이비부머가 보내게 될 노년기는 이전 세대 노년의 삶과 여러 모로 다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후 시간을 어떻게 꾸려나가느냐에 따라 노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정해진다고 볼 때, 베이비부머가 인생 후반기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다루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노년기에 대한 모델이 부재하고 개인적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이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노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가는 최저보장을 하고 있지만 이 세대는 좀 더 나은 풍요로운 노후를 맞으려는 욕구가 더 강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후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노후에 찾아올 수 있는 노인의 빈곤, 질병, 수입의 감소, 역할상실, 고립이나 소외감에 대비하는 안정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양하게 예견되는 노후생활의 문제들을 의식하게 되면서 베이비부머 세대는 노인이 되기 전부터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는 추세이다. 만약 미리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를 충분하게 하지 못한다면, 안정된 노후생활을 기대할 수 없고, 노년기에 경제적·심리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1,2].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 실태 및 의식을 조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들의 노후에 대한 준비의식은 높은 편이지만 구체적인 준비는 미흡한 편이다. 예를 들어, 2012년 베이비부머에 대한 2차년도 패널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의 69.1%는 은퇴 후와 노후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준비는 하지 못하고 있다. 노후준비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볼 경우, 베이비부머는 다른 세대에 비해 경제와 건강 영역의 노후 준비는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여가와 사회참여에 대한 노후준비는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노후 준비는 특히 연령, 성별, 학력 및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노후준비에도 양극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시장경제의 변화로 인해 본인 스스로 노후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상황을 반영하듯, 베이비부머의 은퇴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다양해지고 있다. 완전 은퇴한 베이비부머는 4.7%이며, 많은 베이비부머들은 원 직장에서 은퇴한 뒤에도 재취업, 창업 등 일자리를 이어가도 있는 것이다[5].

이런 시점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직장생활과 삶의 질의 관점에서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연구는 노인복지 발전의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마지막 직장생활 만족도가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나 노후준비에 따른 삶의 질을 살펴보는 경상남도 창원지역에서의 연구는 전무하다.

1.2 연구의 목적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삶의 질 정도와 노후준비에 따른 삶의 질 정도를 살펴보고 직장생활, 노후준비, 삶의 질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직장생활과 삶의 질 관계에서 노후준비가 어떤 매개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베이비부머 세대

베이비붐은 어떤 시기에 출생하는 아이의 수가 폭증하는 현상으로 이 시기에 태어난 출생 코호트를 '베이비부머'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부머는 1955년에서 1963년에 태어난 세대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6%(2010년)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인구집단이다.

사회 속에서 일종의 계층으로 나타나는 '세대'라는 개

념은 가계 계승의 원리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 세대를 나누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는 동기집단을 나타내는 경우, 청소년이나 대학생의 세대처럼 생애주기에서 어느 단계에 이르러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경우, 역사에서 특정한 경험들을 함께 겪은 사람들을 묶은 경우에 세대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5,6].

미국과 일본의 세대 구분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출생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 시기인 1946년과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을 말하고 있으며, 이 때 태어난 세대들의 인구규모는 1995년 기준 77,587천 명으로 그 비율이 19.5%에 달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베이비부머 시기는 1947년도에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때 태어난 인구의 숫자는 29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이후 3년간 연평균 출생 숫자는 270만 명(평균 출생률 33.8%)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국전쟁이 발생하게 된 영향으로 인하여 서구에 비해 10년 늦게 나타나게 된 베이비부머는 1957년 한해만 해도 1941년의 신생아 수에 비하여 2배에 달하는 아기가 태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다[9].

현재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신체적 능력과 건강상태를 점차로 상실하는 집단인 노년기에 서서히 다가가고 있으며, 생의 전반기부터 누적되어 온 경험의 영향으로 건강수준의 편차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인 중년기를 맞이하고 있다.

2.2 노후와 노후준비

노후에 대한 개념은 1986년 미국의 노년학회 연례회의에서 처음 소개되었으나[23],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주목받기 시작하여 관련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성공적 노후의 개념과 인식, 척도 개발 등의 연구[2,5]들이 이루어져 왔다. 성공적 노후에 대한 개념은 그동안 노년학 분야의 중요한 연구 주체가 되어왔지만, 이 개념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성공적 노후는 때로는 생활만족도, 삶의 만족도와 같은 개념으로 연구되어 오기도 하였다[3,17,22,24].

특히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는 일반적으로 현재의 직업상태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노후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대비가 부족하다. 노후생활보장의 주요 요인인 퇴직금 및 연금제도등 경제적 준비가 미흡하고, 더욱이 고용상태에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제한되어 있어 노후생활이 예측 불가능한 두려움의 시간으로 인식되고 있다[8]. 노후준비란 자신의 복지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적응에 따른 자원의 소비가 요구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개인이 기울이는 문제해결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노화불안에 대한 인지와 그에 따른 문제해결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다.

노후준비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1,6,13]에서 노후준비를 신체적, 경제적 및 사회적 노후준비로 구분하였다. 신체적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로 Rowe, Kahn(1997)은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서는 질병을 피해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요소라고 하였고[25], Cha, Han(2003)은 성인 전반기부터 누적된 경험의 영향으로 노년기까지 개인 간의 건강수준 편차를 더욱 크게 만드는 시기가 중년기라고 하면서 신체적 노후준비를 중년기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1]. 경제적 노후준비는 노년기에 갖추어야 할 경제적 수준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판단에 따라 노후자산을 마련하고,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Kang(2005)의 연구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상승과 더불어 경제적 지위가 상승하는 중년기부터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1]. 한편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들도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역할상실을 경험하게 되고, 노년기의 역할상실은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가족, 친구와의 관계를 굳건히 하거나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활동을 많이 하는 등 사회적 영역에서의 노후준비도 필요하다[13,14].

노후에 대한 문제는 개인, 가족, 국가가 함께 대비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중년기 성인들은 가족이나 국가의 지원에 의지하기 보다는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노인부양에 대한 생각은 자녀가 책임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핵가족화 현상으로 이러한 현상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들 스스로가 신체적 변화나 생활양식의 변화를 이해하고 자신이 노년에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미리 준비해야 노년기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노후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년기부터 부부가 함께 신체적인 관리와 아울러 취업이나 창업, 취미활동, 사회봉사활동, 여가활동 등 스스로 최선을 다해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연구가 많은 편이다.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는 노후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시기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부머세대를 중심으로 한 중년층의 본격적인 은퇴가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노후준비는 은퇴 이후의 노년기를 대비하여 주로 경제적인 측면과 신체 및 정신적인 건강, 심리·정서적 측면, 사회적 교류의 유지 측면 등에 대한 대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Kim(19812)이 이러한 노후준비를 노인부양 서비스의 관점에서 연구한 이래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경향을 따르고 있다. 즉, 노인복지적인 측면에서 노후준비를 사회적, 국가적 지원과 서비스의 부족에서 그 문제점을 찾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인이 스스로 그 해결책을 분비해야 한다는 개념이 찾아야 한다는 개념이 주된 이론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7].

노후준비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신체적 준비, 경제적 준비, 정서적 준비[10], 신체적 준비, 경제적 준비, 정서적 준비, 여가준비[19], 생활대책, 경제대책, 주거환경대책, 취업대책[20], 경제적 차원,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신체적 차원[12]등 다양한 차원에서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직장생활이 삶의 질에 미치는 관계에서 노후준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노후준비를 구체적으로 신체적 노후준비, 심리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가 어떤 매개 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 250명을 대상으로 2012년 9월 22일~9월 30일까지 설문지를 통한 면접조사를 하였다. 연구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응답이 미비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46부를 제외한 204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Table 1과 같다.

일반적인 특성으로 남성 45.6%(93명), 여성 54.4%(111명)로 여성이 더 많았고, 최종학력은 고졸미만이 3.9%(8명), 고졸이 39.7%(81명), 대졸이상이 56.4%(115명)로 대졸이상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2.5%(5명), 100~200만원은 8.8%(18명), 200~300만원은 16.2%(33명), 300만원 이상은 72.5%(148명)로 300만원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경제수준은 상이 4.4%(9명), 중이 71.1%(145명), 하가 24.5%(50명)로 중간정도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	N(%)
gender	Male	93(45.6)
	Female	111(54.4)
Educational Level	≤Middle	8(3.9)
	High	81(39.7)
	≥College	115(56.4)
Income	≤100	5(2.5)
	100~200	18(8.8)
	200~300	33(16.2)
	≥300	148(72.5)
Economic Level	High	9(4.4)
	Middle	145(71.1)
	Low	50(24.5)

3.2 연구 도구

3.2.1 노후준비

본 연구에서의 노후준비문항은 Lee(2010)가 개발한 것으로 경제적 차원, 심리적 차원, 신체적 차원, 사회적 차원으로 총 3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방식의 5점 척도이다.

Lee(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경제적 준비 .70, 심리적 준비 .78, 신체적 준비 .65, 사회적 준비 .69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경제적 준비 .76, 심리적 준비 .74, 신체적 준비 .73, 사회적 준비 .75이었다.

3.2.2 직장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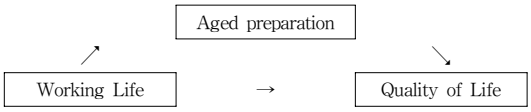
직장생활은 Suh(2012)이 사용한 도구로, 직장 및 직무에 대한 만족도와 직장생활을 통한 사회적 교류 정도를 나타내는 1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Suh(201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직장 및 직장 및 직무에 대한 만족도 .89, 사회적 교류 정도 .73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직장 및 직무에 대한 만족도 .86, 사회적 교류 정도 .68이었다.

3.2.3 삶의 질

삶의 질이란 개인의 복지와 삶의 만족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있으므로 삶의 질 측정으로 Campbell(1981)의 주관적인 삶의 질 척도(Index of Well-Being)를 사용하였다. 주관적인 삶의 질 척도는 8문항이며 최근의 삶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인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Campbell(1981)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96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도 .96이었다.

3.3 연구 모형

각 변인간의 인과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Fig. 1] Study model

3.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은 SPSS 15.0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특성과 영향력 검증을 한 후, 매개효과 검증은 Amos 7.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측정모델(measurement model)과 이론모델(structural model)을 동시에 고려하고, 측정변수의 측정오차를 포함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정확한 경로분석으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측정오차를 고려한 구조방정식 모형이 적합하다고 본다.

4. 연구 결과

4.1 측정도구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에 대한 기술 통계치는 Table 2와 같다. 각 영역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경제적 노후준비의 평균은 3.54, 심리적 노후준비의 평균은 3.64, 신체적 노후준비의 평균은 3.45, 사회적 노후준비의 평균은 3.49, 전체 노후준비는 3.49로 나타났다. 직장생활정도의 평균은 3.78로 나타났으며, 삶의 질의 평균은 3.59로 나타났다.

[Table 2] The descriptive ststistics of variables(n=204)

Variable	M	SD	N
Economic preparation	3.53	0.59	204
psychological preparation	3.64	0.54	204
physical preparation	3.45	0.53	204
Social preparation	3.49	0.56	204
Total Aged preparation	3.49	0.59	204
Working life	3.78	0.64	204
Quality of life	3.59	0.72	204

4.2 직장생활이 삶에 미치는 영향 검증

직장생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한 결과, 직장생활에 대한 회귀계수는 정의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유의적이므로(t=4.167, p=.000) 직장생활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회귀계수가 정의 값을 가지므로 직장생활정도에 따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3] Working life and Quality of life Regression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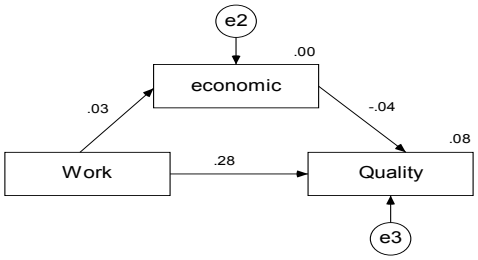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B	Std. Error	Beta	t	Sig.
(Constant)	2.320	.300		7.734	.000
Work	.327	.079	.282	4.167	.000

Dependent Variable: Quality

4.3 노후준비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

Fig. 1의 연구모형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모형은 포화모형(saturated model)으로 자유도 (df)=1, GFI=1.0을 가진다.

4.3.1 경제적 노후준비의 매개효과



[Fig. 2] Path analysis model(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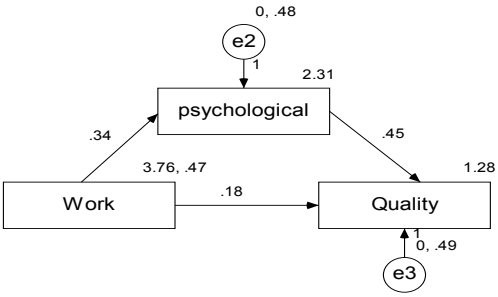
[Table 4] Economic aged preparation mediation effect

Variable	Est.	S.E.	C.R.	P
economic ← Work	.044	.115	.381	.703
Quality ← Work	.330	.079	4.199	***
Quality ← economic	-.027	.048	-.562	.574

***p<.05

Fig. 2와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이비부머 세대는 직장생활과 삶의 질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적 노후준비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생활과 삶의 질의 직접효과는 .283, 간접효과는 -.001, 총효과는 .282로 나타났다. 직장생활과 삶의 질이 더 큰 효과를 가지는데 재무관련 교육과 준비가 부족하고 양육과 부양에 대한 비용이 많은 세대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4.3.2 심리적 노후준비의 매개효과



[Fig. 3] Path analysis model(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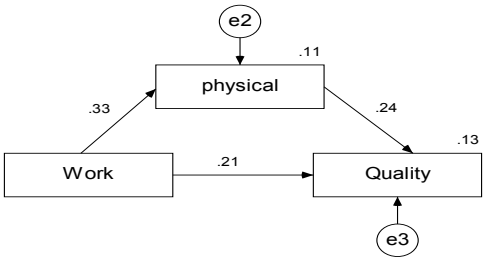
[Table 5] Psychological aged preparation mediation effect

Variable	Est.	S.E.	C.R.	P
psychological ← Work	.337	.070	4.775	***
Quality ← Work	.180	.076	2.382	***
Quality ← psychological	.448	.072	6.268	***

***p<.05

Fig. 3과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이비부머 세대는 직장생활과 삶의 질의 관계에 있어서 심리적 노후준비가 부분 매개효과(C.R.=2.382,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생활과 삶의 질의 직접효과는 .155, 간접효과는 .130, 총효과는 .285로 나타났다. 증가되는 연령과 자녀와 관련된 변인들이 나타나면서 심리적인 노후준비는 미리 대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4.3.3 신체적 노후준비의 매개효과



[Fig. 4] Path analysis model(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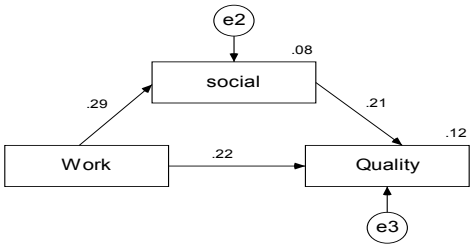
[Table 6] physical aged preparation mediation effect

Variable	Est.	S.E.	C.R.	P
physical ← Work	.290	.059	4.938	***
Quality ← Work	.242	.081	3.001	***
Quality ← physical	.313	.091	3.445	***

***p<.05

Fig. 4와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이비부머 세대는 직장생활과 삶의 질의 관계에 있어서 신체적 노후준비가 부분 매개효과(C.R.=3.001,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생활과 삶의 질의 직접효과는 .208, 간접효과는 .078, 총효과는 .286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세대는 건강과 질환이 만성적인 습관과 관련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신체적 노후준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4.3.4 사회적 노후준비의 매개효과



[Fig. 5] Path analysis model(4)

[Table 7] social aged preparation mediation effect

Variable	Est.	S.E.	C.R.	P
social ← Work	.303	.070	4.325	***
Quality ← Work	.261	.080	3.255	***
Quality ← social	.230	.077	2.986	***

***p<.05

Fig. 5와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이비부머 세대는 직장생활과 삶의 질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노후준비가 부분 매개효과(C.R.=3.255,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생활과 삶의 질의 직접효과는 .225, 간접효과는 .06, 총효과는 .284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와 일자리와 관련된 변화가 나타나면서 사회적인 노후준비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의 결과, 베이비부머 세대는 직장생활 즉 직무에 대한 만족도와 직장생활을 통한 사회적 교류 정도가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생활을 통한 노후에 대한 준비는 삶의 질에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노후준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장생활은 경제적인 노후준비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생활보장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직장생활 만족도가 노후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함으로 인해 준비되어지는 심리적 노후준비와 베이비부머 세대를 은퇴로 몰고 가는 사회적 환경으로 인한 사회적 노후준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는 직장생활로 인한 신체적 노후준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지 못해도 삶의 질은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노후준비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더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노후준비는 개인이 소속된 사회나 자연 체계에 적응하기 위해 자원을 소비해야 할 상황에 있을 때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노후준비에 관한 접근은 다양한 차원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노년생활에 소요되는 자금을 공적·사적기제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준비하거나 노년기 경제적 기회구조를 강조하는 동시에 건강과 인적자본, 가족 및 사회관계, 여가 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노년기를 맞는 베이비부머들은 자신의 노후생활에 예상되는 여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준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다. 이는 평생교육 형태의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할 수 있겠다.

따라서 베이비부머 세대는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미래에 대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적합한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노년기에 갖추어야 할 경제적 수준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판단에 따라 노후자산을 마련하고,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이후에 나타날 또 다른 뉴실버 세대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노후준비에 대한 제반 정책과 보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설문조사가 창원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를 대상자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베이비부머 세대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창원지역을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는 기초자료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한편, 환경보다는 개인의 노후준비 정도에 초점을 맞춰 조사하여 직장생활에서의 근로조건과 근로환경 등의 부가 정보를 함께 확인하지 못한 점은 다른 요인에 대한 영향을 보기에는 부족한 한계점이 있다.

References

[1] Y. J. Kang, “A Study on Korean Adults′ Planning for Old Age”, *Journal of the Korean Community Living Science*, 11(4), pp. 159-174, 2005.

[2] I, Kang, “A Study on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20(2), p. 16, 2003.

[3] S. D. Ko, “An Analytical Study of Factors Affecting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Ewha Womans*, Seoul, 2005

[4] M. H. Kim, “A Study on th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Successful Aging among Korean Elderly Group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2(2), pp. 697-716, 2010.

[5] M. H. Kim. K. R. Sin,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uccessful Aging′ Scale for Korea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5(2), pp. 35-52, 2005.

[6] Y. H. Kim, C. W. Lee, “A study on preparation Level for old age of the Middle aged″,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Research*, 19(0), pp. 55-82, 2008.

[7] T. H. Kim, “A Study on the Care-giving for Elder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Korea*,

Seoul, 1981.
[8] M. J. Bae, "The Effect of Retirement Expectation on Preretirement Planning Program",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5(1), pp. 145-158, 2007.
[9] J. E. Paik, H. K. Choi, "Cross-Cultural Study of Successful Aging in Korean and Western Societ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5(2), pp. 137-153, 2005.
[10] J. Suh, H. I. Park, "A Study on the Supporting Behavior and the Preparation for the Declining Ages: Focused on the Middle Aged parents", *Journal of Living Science Research*, 18(0), pp. 143-166, 1992.
[11] H. Suh, "A Study on Middle-aged Men's Job Career and Their Relationship with Spouses for Successful Aged Life Plan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oseo*, Asan, 2012.
[12] M. S. Seong, "A Study on Middle-Aged Women's Provision and Measures for old age: Centering on Ulsan", *Unpublished maste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Dongguk*, Seoul, 2004.
[13] K. H. Lee, S. H. Moon, "Assessing the Linkage between Economic Activity and Enrollment in Retirement Pension Plan among Mid-Age Women",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19(2), pp. 129-160, 2010.
[14] Y. J. Lee, "The Degree of Preparation for the Old Age and the Aging Anxiety of Middle-aged Couple", *Unpublished maste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nseo*, Seosan. 2010.
[15] Y. B. Lee, E. J. Yeun, "An Inquiry into Subjectivity toward a Successful Aging among Korean Mid-life and Elders: A Q-Methodological Approach",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0(4), pp. 1961-1976, 2008.
[16] A. Campbell, "The sense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31, pp. 117-124, 1981.
[17] S. D. Chung, "Living Arrangement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Low-Income Elderly", *Journal of Korean Family Social Work*, 11, pp. 59-79. 2003.
[18] D. H. Chung, "Choice Probabilities of the Characteristics for a Successful Retirement Life",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4(2), pp. 793-802, 2012.
[19] Ch. Y. Cho, M. Y. Song, K. S. Lee, "The Decision Factor on Thinking against Their Old Age of the Middle Generatio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43(1), pp. 135-156, 2009.
[20] J. W. Jeon, "A Study on Measure Against Old Age Of The Middle-Aged People", *Unpublished maste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Daegu Catholic*, Daegu, 2002.
[21] S. E. Cha, G. H. Han, "Job, Family, and Physical Health, Family and culture", 15(2), pp. 33-60, 2003.
[22] S. J. Choi,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easuring Scale of he Concep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Culture Institute*, 49, pp. 233-258, 1986.
[23] B. J. Fisher, "Successful Aging", *Life Satisfaction, and Generativity in Later Life*, Aging Hum Dev, 41, 1995. 239-250.
DOI: http://dx.doi.org/10.2190/HA9X-H48D-9GYB-85XW
[24] R. C. Mannell, S. Dupuis, "Life Satisfaction, in J. E. Birren(Ed.), Encyclopedia of Gerontology", 2, *San Diego: Academic Press*, pp. 59-64, 1996.
[25] J. W. Rowe, R. L. Kahn,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4), pp. 433-440, 1997.

장 유 미(Yu-Mi Jang) **[정회원]**

- 2011년 2월 : 경성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박사)
- 2011년 2월 : 국립경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경제학 박사)
- 2013년 3월~ 현재 : 국립경상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과정
- 2008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성장과 분배, 노동과 고용, u-Health & u-Wellness

강 양 희(Yang-Hee Kang) **[정회원]**

- 1999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4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0년 2월 ~ 현재 :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청소년 건강증진, 여성 및 임산부 건강증진